

광산구, 첫 일터혁신지원사업 성공적

'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성과 공유회 6개 기업 매출 향상 뚜렷·고용 창출 공정·공법 개선 5~30% 생산성 향상

광주 광산구의 첫 일터혁신지원 시범사업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광산구는 지난 14일 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일터혁신 플러스'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한 '소기업 성장지원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소기업 성장지원 멘토링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기업을 발굴해 기업을 진단하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사업 전략, 기술·서비스 고도화,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노동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일터혁신'을 일하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관내 6개 기업에 멘토링을 제공했다.

이날 성과 공유회에선 시범 사업의 구체적 추진 과정과 성과 공유, 참여 기업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3개월간 시범 사업 결과, 생산성, 매출, 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생산 공정과 공법 등을 개선해 기업마다 5%에서



박병규(왼쪽에서 여섯번째) 광산구청장이 지난 14일 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일터혁신 플러스'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한 '소기업 성장지원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대 30%까지 생산성이 향상되는 성과를 냈다. 우리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판로 확대를 통해 기존보다 30% 이상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멘토링 참여 기업 대다수가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서며 등 생산성 개선이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졌다.

광산구는 시범사업의 과목할 만한 성과를 토대로 참여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올해 추진하는 일터혁신 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소기업 성장지원 멘토링 지원사업은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노사상생 동반 성장 컨설팅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노사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일터' 만들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3개월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실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고용 창출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다"며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만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터혁신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돌봄지원·나무심기...광산구에 온정

(주)휴네시온&(주)한기술·수완나들목 상인회 등 후원

광주 광산구는 "최근 돌봄 이웃 지원, 탄소중립을 위한 나무심기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보보안 업체인 (주)휴네시온&(주)한기술은 지난 10일 광산구청에서 전담식을 갖고 후원금 300만 원을 투계터광산 나눔문화재단에 기탁했다.

이어 광주수완동 소재 상인회인 수완나들목 상인회도 상인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12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기탁된 후원금은 광산구 관내 돌봄 이웃 지원, '탄소중립 도시 광산'을 위해 추진하는 '2023 상생 희망 나무심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담식에 참석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매서운 추위와 연일 상승하는 난방비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때 지역 공동체의 나눔과 연대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더 밝게 하는 일에 기여하길 바라며, 후원해주신 기업과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외국인 주민 지원체계 구축...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한다

광산구, 지원 시책위원회 개최 기본계획 심의·기관별 정보 공유

광주 광산구는 지난 14일 구청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시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책위원회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시책 수립 및 자문을 위한 기구다.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시교육청, 광산경찰서, 광산가족센터, 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2023년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와 기관단체별 사업 정보 공유, 외국인주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호남권 최초로 전담 부서인 외국인주민과 신설 후 첫 소통의 자리로 마련한 '외국인주민과의 대화'에서 제시된 '이주민 엄마'를 위한 다국어 학교 '일립장',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교육, '다문화가정자녀 엄마나라 언어교육' 등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광산구는 이날 시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올해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지난 14일 구청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외국인주민 삶을 이롭게 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소통을 최우선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며 "유관 기관·단체와

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주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광산구 기후환경' 소통 창구 운영...오염물질 효율적 관리

광주 광산구는 "관내 사업장의 효율적인 환경오염물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광산구 기후환경과' 소통 창구(카카오톡 채널)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통 창구 운영은 획일적인 지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사업자의 환경오염물질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가입대상은 광산구 대기-폐수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사업장이다. 카카오톡에서 '광산구 기후환경과'를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채널을 추가한 사업장은 관련 규제 준수사항

등의 정보를 포스트, 알림톡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궁금한 점은 1대1 채팅으로 문의하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환경관리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 사업 등의 유용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리 효율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 운영과 함께 환경관리 기술지원, 교육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주관 공중위생 평가, 광산구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광주 광산구는 "광주시 주관 자치구 공중위생 관리사업 분야 추진사항 평가결과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중위생관리사업 활성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공중위생 특수시책사업 3개 분야 11개 지표로 이뤄졌다.

광산구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서비스 평가, 크린속박업소 관리 등 다양한 위생관리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불·옷 세탁서비스, 만 75세 이상 어르신 미용 요금을 할인 등의 '깨닫장' 재능기부 프로젝트는 취약계층의 쾌적한 생활환경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 관계자는 "변화하는 공중위생업의 다양성에 맞춰 수준 높은 공중위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